

IDEATION SESSION

DESIGN CHALLENGE

**한국에 온 지 1개월 이내인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언어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즐겁게 미식 탐방을 하게 하자**

HOW MIGHT WE? QUESTION

①

INSIGHT

한국에 온지 1개월 이내인 외국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음식에 부합하는 식당을 지도앱을 통해 즉흥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식당을 정하고 가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식당을 찾는 것의 만족도가 낮았다.

HMW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본인만의 조건(위치,가격,방문인원,시간대,음식취향)에 맞는 최적의 식당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까?

②

INSIGHT

한국에 온지 1개월 이내인 외국인들은 기존 네이버맵의 영어 번역이 원할하지 않다는 이유로, 더 구체적인 장소를 찾을 때 구글맵의 한글 주소를 복사해 네이버맵에 붙여넣기하는 방식으로 검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HMW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의 한국어 주소를 알지 못해도 원하는 식당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까?

③

INSIGHT

한국에 온지 1개월 이내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추천받기를 원한다.

HMW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의 도움 없이도 한국 현지의 맛과 문화를 깊이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FIRST IDEATION (WITH CHAT GPT)

챗지피티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4명의 팀원이 아이디어션을 먼저 진행한 후, 프로젝트의 디자인 챌린지, 얻어낸 인사이트, HMW 질문을 이용하여 챗지피티에게 질문을 하였다. 결과는 오른쪽과 같다.

- **블라인드 미식 체험:** 사용자가 앱을 통해 식당에 예약하면, 도착해서는 눈가리개를 쓰고 음식의 향과 맛만으로 식사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미리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맛, 냄새, 질감에 의존해 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순간의 서프라이즈도 큰 재미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음식의 본질적인 경험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음식의 독특한 재료와 조리법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5. 음식의 길 (Path of Flavors)

- **모험을 통한 미식 탐방 코스:**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음식의 길'을 따라 관광객이 미식 모험을 떠나도록 유도합니다. 관광지 곳곳에 QR 코드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해당 QR을 스캔할 때마다 특별한 미식 정보와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코스에서는 전통 한식을 체험하고, 그다음에는 퓨전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이어지며, 각 식당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QR 코드가 새로운 모험의 단서가 되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6. 미식 페스티벌 경로 (Food Festival Route)

-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한 페스티벌:** 도시에 분포한 다양한 식당들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연합하여 '미식 페스티벌 경로'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매운맛 투어'를 선택하면 각 식당에서 제공하는 매운맛 음식을 차례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경로를 따라 식당을 방문할 경우 할인 혜택이나 특별 메뉴를 제공하며,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는 특정 목표(예: 5곳의 식당 방문)를 달성하면 선물이 주어집니다. 도시 전체가 음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축제가 되는 것이죠.

7. 요리사와의 랜덤 대화 (Random Chef Inte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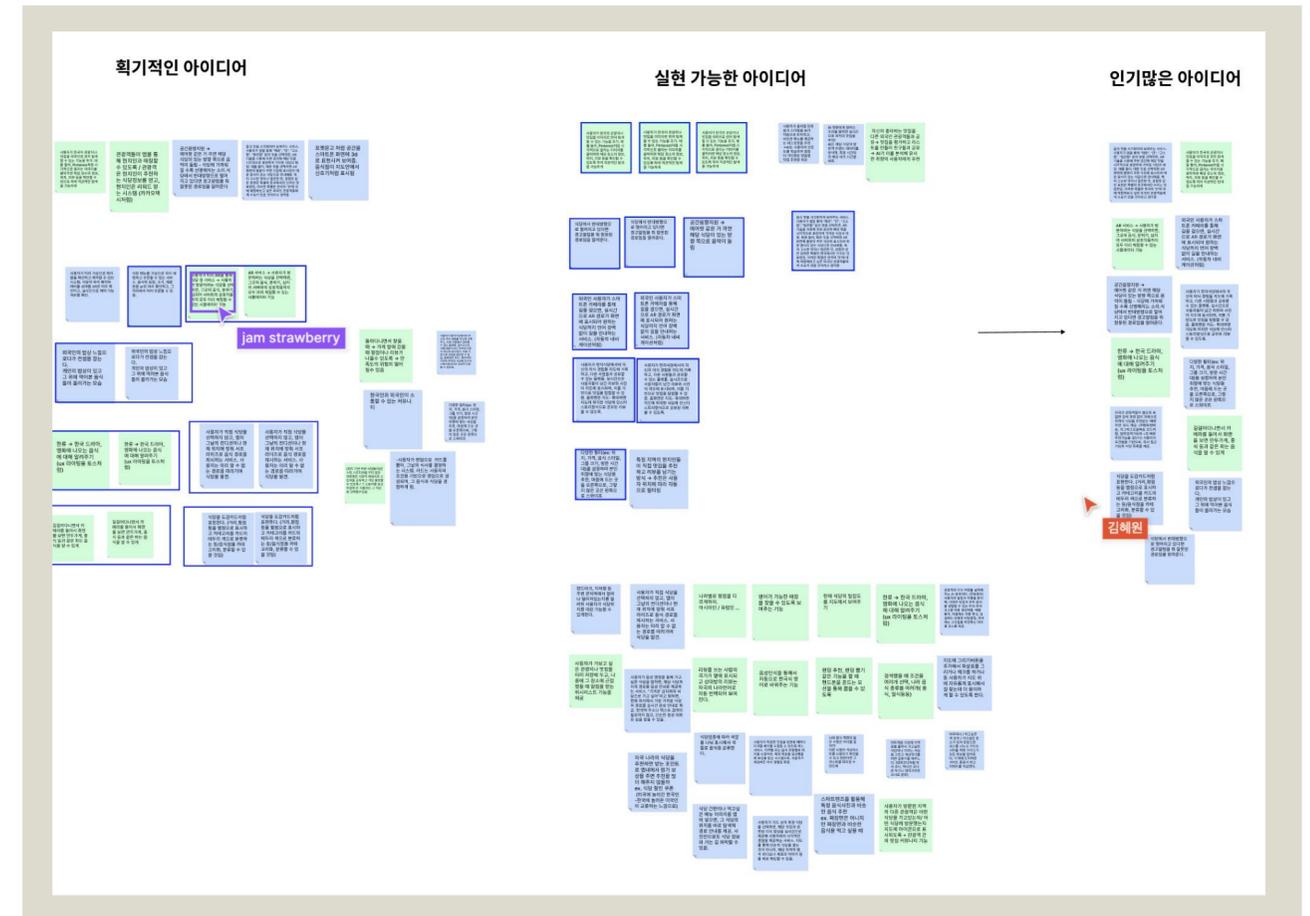
- **즉석에서 셰프와 소통:** 사용자가 선택한 식당의 셰프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 셰프가 직접 등장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추천을 해주거나, 그날의 특별한 요리를 직접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말하면 셰프가 즉석에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거나,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죠. 사용자는 셰프와의 대화를 통해 보다 개인화된 식사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8. 감각에 따른 음식 추천 (Sensory-Based Food Matching)

- **현재 감각 상태에 따라 음식 추천:** 사용자가 현재의 감각적 상태에 따라 음식을 추천받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기분을 고르거나 날씨, 현재 주변 환경(소리, 조명 등)을 감지해 감각에 맞는 음식을 추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맑은 날에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 등을 제안하고,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맞는 요리를 추천합니다. 이런 감각적 접근은 그날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맞는 특별한 음식을 선택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Q 계속 생성하기

CATEGORIZATION



아이디어 분류 및 선정

도출된 아이디어를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나누고 그룹핑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팀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기많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GUT CHECK_1

DESIGN CHALLENGE :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언어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즐겁게 미식 탐방을 하게 한다.

HMW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본인만의 조건(위치,가격,방문인원,시간대,음식취향)에 맞는 최적의 식당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사용자가 맛집을 이미지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

식당을 도감카드처럼 표현한다. (거리,평점 등을 별점으로 표시하고 카테고리를 카드의 테두리 색으로 분류하는 등/음식점을 카테고리화,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Pinterest 처럼 시각적으로 끌리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장소의 정보, 위치,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직관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류 → 한국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 알려주기 (ux 라이팅을 토스처럼)

아이디어 설명

사용자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한국의 맛집을 이미지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클릭 시 해당 장소의 정보와 리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결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탐색의 간편함: 시각적 탐색 방식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명확성: 이미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 장벽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주소나 간판 정보를 몰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식당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언어 장벽 없이 원하는 식당까지 길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이미지를 통해 식당을 쉽게 탐색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여 길 찾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GUT CHECK_2

DESIGN CHALLENGE :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언어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즐겁게 미식 탐방을 하게 한다.

HMW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도 한국 현지의 맛과 문화를 깊이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까?

한국인과 외국인이 맛집
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

관광객들이 앱을 통해
현지인과 매칭할 수 있
도록 / 관광객은 현지인
이 추천하는 식당정보
를 얻고, 현지인은 리뷰
드 얻는 시스템 (카카오
택시처럼)

외국인의 밥상 느낌으
로 개인의 밥상이 있
고 그 위에 먹어본 음
식들이 올라가는 모습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도의 복
잡한 검색 과정 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식당을 추천받는 '빠른
추천' 모드 제공. (쿠팡로켓배
송, 지그재그오늘배송 모드처
럼, 일반검색기능에 +로 빠른
추천기능을 넣는다) 사용자의
조건들을 기반으로, 즉시 접근
가능한 식당 목록을 제공.

아이디어 설명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현지의 맛과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소셜 플랫폼과 현지인 매칭 시스템을 결합하여 운영된다. 관광객은 앱을 통해 한국 현지인과 소통하
며 맛집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현지인이 추천한 식당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식문화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지인은 관광객에게 맛집을 추천함으로써 리뷰드를 받는 구조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

해결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신뢰성 있는 맛집 정보 제공: 관광객이 온라인 리뷰나 관광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 보
다 신뢰할 수 있는 식당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적 교류: 외국인 관광객이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맛과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GUT CHECK_3

DESIGN CHALLENGE :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언어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즐겁게 미식 탐방을 하게 한다.

HMW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의 도움 없이도 한국 현지의 맛과 문화를 깊이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까?

고소한 맛이나 얼큰한 맛, 감칠맛 같은 특별한 한국의 '맛'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 사용자가 앱을 통해 "매운", "단", "고소함", "얼큰함" 등의 맛을 선택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해당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현 위치에서 가까운 식당과 매칭.

예를 들어, 매운 맛을 선택하면 지도 화면에 불꽃이 주변 식당에 표시되어 매운 음식이 있는 식당으로 안내해줌. 특히 고소한 맛이나 얼큰한 맛, 감칠맛 같은 표현은 특별히 한국에서만 쓰이는 맛 표현임, 이러한 특별한 한국의 '맛'에 대해 체험해보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도의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식당을 추천받는 '빠른 추천' 모드 제공. (쿠팡로켓배송, 지그재그오늘배송 모드처럼, 일반검색기능에 +로 빠른 추천기능을 넣는다) 사용자의 조건들을 기반으로, 즉시 접근 가능한 식당 목록을 제공.

공간음향지원 → 에어팟 같은 거 끼면 해당 식당이 있는 방향 쪽으로 음악이 들림 - 식당에 가까워질 수록 선명해지는 소리. 식당에서 반대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면 경고 알림을 줘 잘못된 경로임을 알려준다

아이디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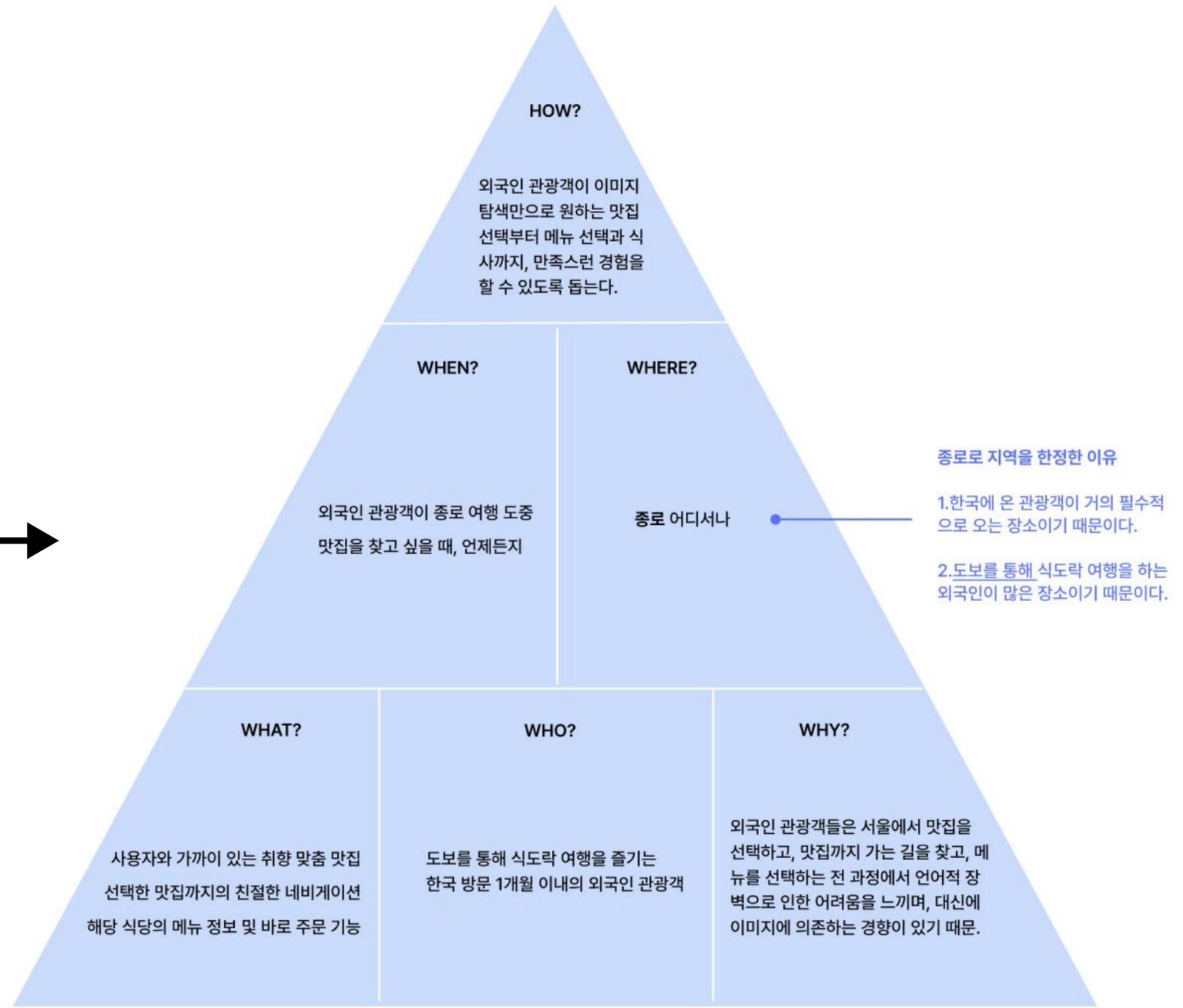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맛(예: 고소함, 얼큰함, 감칠맛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맛을 기준으로 현 위치에서 가까운 식당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맛의 감각적 특징을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쉽게 직관적으로 식당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해결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각적 맛 표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한국의 다양한 맛을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의 도움 없이도 현지의 맛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CONCRETIZED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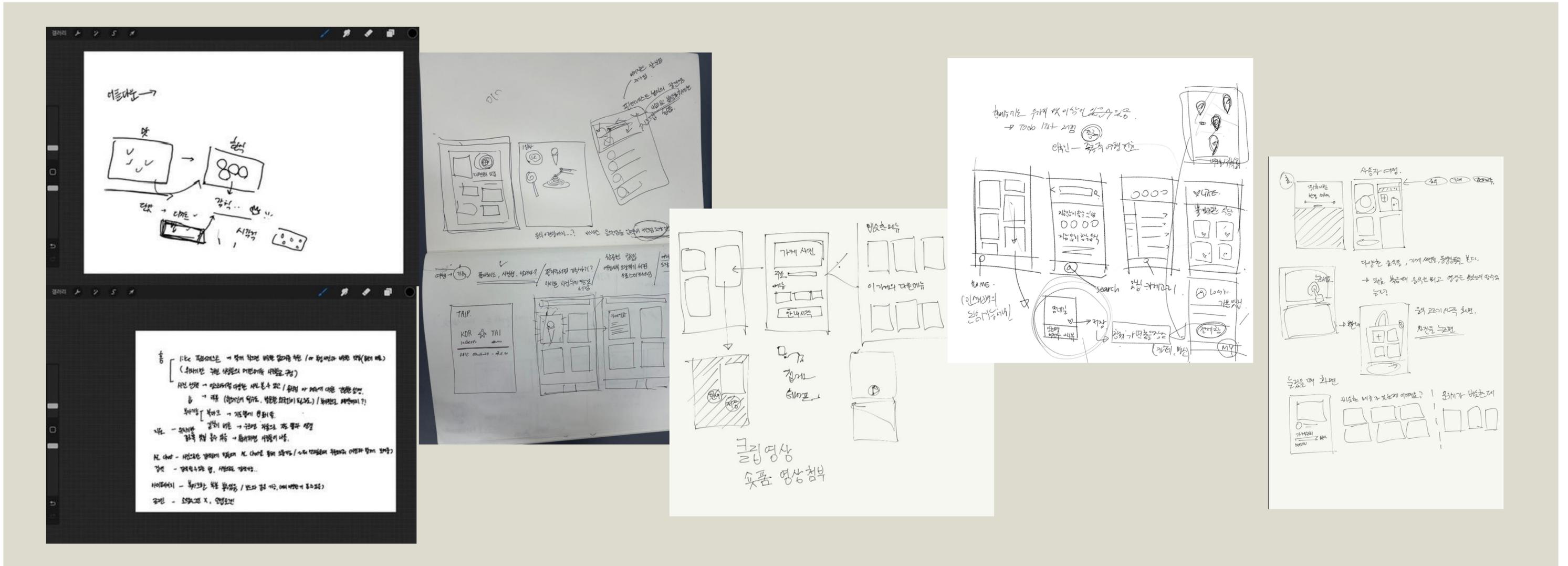
SERVICE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지 탐색만으로 원하는 맛집 선택부터 메뉴 선택과 식사까지,
만족스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올인원 앱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

선정된 아이디어 하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팀원끼리 논의를 통해 육하원칙에 맞춰 아이디어의 구성을 짜는 시간을 가졌다.

IDEA SKETCH



아이디어 스케치, 참고 레퍼런스, 추가 아이디어들을 공유

PERSONA



“ 한국에 여행와서 언어적 장벽없이 편리하고 즐겁게 미식 탐방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맛'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어요!”

이름 이사벨라

나이 21

국적 필리핀

직업 대학생

성격 INFP, 즉흥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주요 요구 한국에서 현지 맛집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한국 여행횟수 / 기간 1회 / 여름 방학을 맞아 2주동안 방문

사용하는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네이버맵 (한국에서 처음 사용)

취미
-한국 드라마 시청
-다양한 나라 여행
-다양한 음식 경험

모바일 기기 사용능력.



반드시 하는 행동 :

식당을 찾아보기 위해 지도어플을 킨다.

틱톡이나 구글에 가고싶은 곳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다.

틱톡이나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가보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공용 와이파이가 되는지 중간중간 체크한다.

지도를 찾아볼 때 가게 이미지를 먼저 확인한다.

반드시 하지 않는 행동 :

가고싶은 식당이나 장소를 미리 다 계획하여 여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즉흥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행 일정을 세세하게 미리 계획하지 않고, 현지에서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인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앱이 없기 때문에 연관된 가입 절차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새로운 장소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

소셜 미디어 없이 여행하지 않는다.

USER 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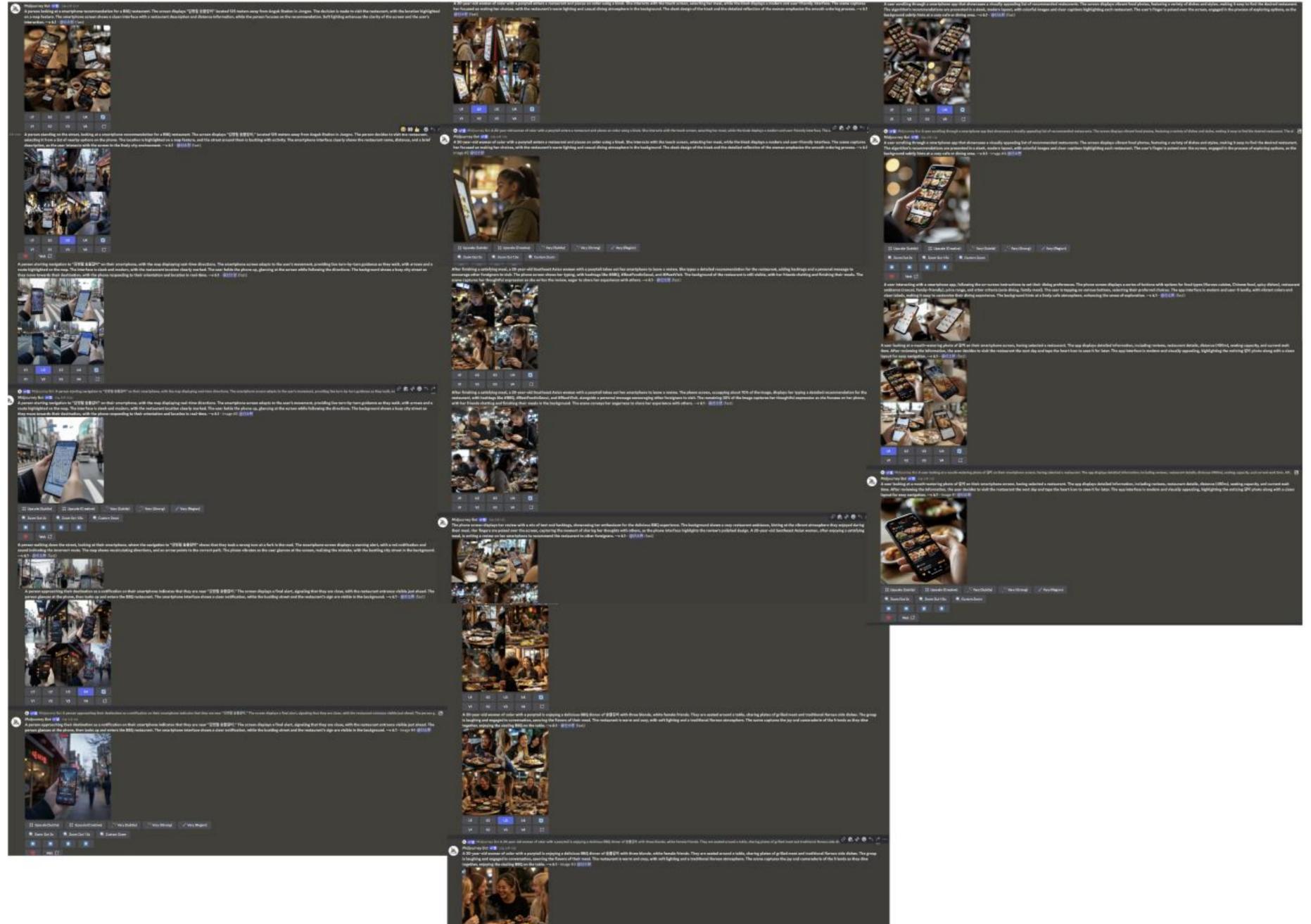
사용자 여정

STAGE	식당 찾기 전		찾는 중			찾은 후		
STEP	도착지 선택 전	온보딩	가게 탐색	가게 선정 완료	길찾기	메뉴 주문	식사 완료 후	어플 업데이트
DOING	종로 도착 어플 다운	선호하는 카테고리 설정 알고싶은 정보 선택	이미지 탐색 이미지 선택 및 비교 가게 세부정보 조회 가게 리뷰 탐색	이미지 북마크 가게 선정	원하는 맛집 길 찾기	선택한 맛집에서 원하는 메뉴 주문	리뷰 남기기	이사벨라의 리뷰를 반영해 식당 이미지 추천을 더욱 개인화
THINKING	네이버 맵에는 한국어로 되어있어서 식당선택하는게 너무 어렵다, 배고픈데 어디 괜찮은 식당 없나?	내가 선호하는 음식이 뭐지? 내가 선호하는 가게가 뭐지?	가게마다 리뷰들을 확인해봐야겠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걸리지?	우선 저장해두고 나중에 비교해볼까? 이 식당으로 선택하겠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야지. 빠른 길로 갈 수 있겠지?	한국어로 주문하기가 힘드니 앱을 통해 주문해야겠다	오늘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 리뷰를 남겨서 다른 관광객들도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	내 리뷰와 북마크에 따라 홈화면이 업데이트 됐네
EMOTION	배고픔, 짜증남	호기심	흥미로움	기대감	기대감 하지만 약간의 두려움	기대감	만족감	만족감, 흥미로움, 다음에 방문할 맛집에 대한 기대감
PAINPOINT	식당 선택에 어려움을 느낌	내가 좋아하는게 뭔지 모름. 내가 원하는게 너무 다양함. 내가 원하는게 화면에 없음.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음. 가게의 상세 정보를 알고 싶음. 가게 리뷰글을 읽고 싶음.	북마크 중 원하는 내용으로만 비교하고 싶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있는지 걱정이 된다.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	주문한 메뉴가 내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기 어렵다.	리뷰 남기는 행위가 귀찮다.	어떻게 업데이트가 적용 됐는지 변화된 화면을 알아채기 어렵다.
OPPORTUNITY	인 앱 로그인	-간단한 취향 분석 질문 -음식 취향 결과지 제공	-취향 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 음식 이미지 -가게의 좌석 구성, 화장실 유무 등 가게 정보 제공 -가게의 리뷰 제공	-선호하는 식당을 저장할 수 있는 북마크 -저장한 식당을 비교할 수 있는 필터 기능	-선택한 식당으로 가는 경로 제공 -경로방향이 반대일 때 경고알림 -도착지 가까워질 때 알림	-음식사진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 가능 -여러 언어 지원	-태그 기능과 함께 간단한 리뷰를 쓸 수 있는 기능	-이사벨라가 원하는 맛집을 선택함에 따라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MIDJOURNEY

미드저니 활용

시나리오의 그림은 미드저니 ai를 활용하여 그려 내었다. 상황에 맞는 묘사를 프롬프트에 작성하여 여러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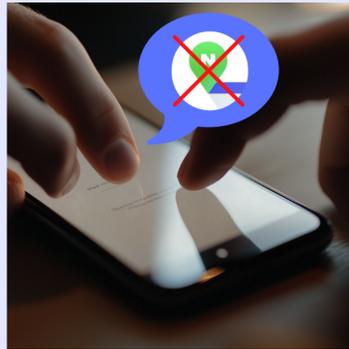
SCENARIO

01 문제 상황 인식



한국에 여행 온지 2일차인 이사벨라와 친구 2명은 서울 종로에 도착하여 점심시간이 다가옴을 느낀다.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지만, 네이버 맵으로 식당 이름과 정보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있어서 식당 고르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02 어플 실행



이사벨라와 친구들은 네이버맵으로 식당 서치하기를 포기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 앱을 실행한다.

03 온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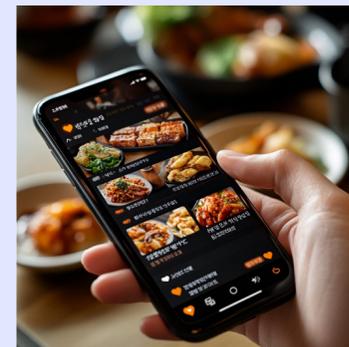
이사벨라는 화면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종류(한식, 중식, 매운 음식 등)나 가게 분위기, 원하는 가격대와 기타 조건(혼밥, 가족 식사 등) 등을 설정한다.

04 메뉴 탐색



온보딩때 선호하는 음식과 식당의 분위기를 선택함에 따라 이사벨라만의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생성되어 홈화면에 이미지들이 구축된다. 이사벨라는 앱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맛집 이미지 목록을 스크롤한다. 음식 사진들이 시각적으로 제공되어 쉽게 원하는 스타일의 식당을 찾는다.

04 메뉴 탐색



이사벨라는 여기서 갈비 사진을 보고 가게를 선택한 후 리뷰와 가게 정보, 거리, 수용 가능한 인원수와 웨이팅을 확인하지만 거리가 450m인걸 보고 다음 날에 가기 위해 하트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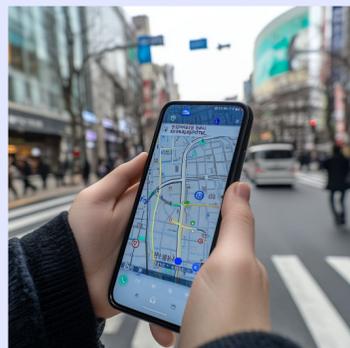
05 메뉴 선정 완료



하트를 하고 추천으로 뜨는 갈비집에서 종로 안국역에서 125m 떨어진 "김병철 숯불갈비" 식당이 있는 걸 보고 김병철 숯불갈비집을 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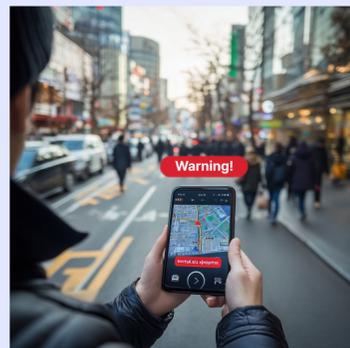
SCENARIO

06 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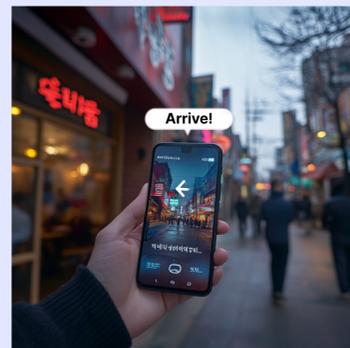
이사벨라가 선택한 "김병철 숯불갈비"집의 길찾기가 시작되고 자신의 핸드폰 방향에 따라 실시간 길안내를 제공한다.

07 길찾기 경고알림



가게를 찾아가는 도중 양갈래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지만 경로방향 경고알림을 통해 길을 잃지 않고 갔다.

08 식당 도착



도착지에 가까워졌다는 알림을 통해 앞에 있는 숯불갈비집이 도착지인 것을 알고 가게에 무사히 들어갔다.

김병철 숯불갈비집에 무사히 도착한 이사벨라와 친구들은 도착완료했다는 알림

09 메뉴 주문하기



김병철 숯불갈비집에 도착하여 이사벨라와 친구들은 앱을 통해 먹고싶은 메뉴들을 확인한다. 메뉴 사진과 함께 어떤 맛인지, 맵기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맛있게 먹는 방법과 같은 팁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식당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고도 메뉴를 이해할 수 있어서 편리함을 느낀다. 메뉴를 모두 고른 이사벨라와 친구들은 '바로 주문' 버튼을 눌러 손쉽게 주문에 성공한다.

10 식사 완료 후



만족스런 식사를 완료 후 이사벨라는 리뷰를 통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시태그와 줄글을 통한 리뷰를 남긴다.

11 어플 업데이트



리뷰와 북마크 설정을 통해 이사벨라의 알고리즘은 업데이트가 되어 빅데이터가 쌓인다.